

국어 교사 임용의 문제와 개선책

이 충 우 (관동대 교수)

I. 서언

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국어 교육이 광복후 오늘날까지의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서 의사 소통이 필수적임을 전제로 할 때 그 의사 소통의 도구인 언어의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점에 있다. 광복 직후의 혼란기가 지나고 국어 교육의 틀이 잡혀간다고 말할 수 있는 현재까지도 국어 교육은 여러 사람들에게 잘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어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어 교육을 잘못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국어 교육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현재 국어 교사의 임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 양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교과 교사 양성 관련 논저에서 논의되었고, 국어 교사 양성에 대한 논의도 여럿 있는데 최근의 연구로는 이충우(1987), 윤희원(1990), 진태하 외(1991)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임용에 관

한 문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사 임용이 국어 교사만 독립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교과 교사의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교과 교사의 임용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어 교사의 바람직한 임용에 대하여만 다루고자 한다.

II. 국어 교사의 필수 자질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국어 교과와 특성에 따를 것이며, 이는 다른 교과 교사의 자질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윤희원(1990:178)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되고 있다.

국어과 교사는, 스스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어과 교사는 언어의 본질 및 기능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음운적·형태적·통사적 특질 및 담화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언어 일반 및 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여러 양상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어과 교사는 문학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종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이해 감상할 뿐 아니라 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주장대로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다른 교과 교사와는 교과의 특질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자질을 갖춘 국어 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기관의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교과 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의 확보와 학문의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국어 교사는 국어교육과 졸업생만이 아니라 국어국문학과 정원의 30% 이내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과 교육 대학원의 국어 교육 전공 졸업생(석사)은 국어 교사의 자격을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질에 차이가 있다. 물론 현 상황은 국어교육과 졸업생이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국어국문학과와 교직 과정 이수자보다 국어 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국어교육과 졸업생과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의 교사로서의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나 학생들의 국어 교사 자격 수여에 대해 국어교육과와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힘이 약하다. 이는 학문의 분화(국어교육의 학문으로서의 독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교수는 으레 문학박사일 것이라는 생각과 교육학박사는 교직과(일반 교육학과)의 교수 전공으로 생각하는 학문 분화에 대한 무지(이들은 교과교육학의 존재를 모른다)에서, 또는 교육 대학원의 교육학 석사 배출에서 오는 단순한 교육학 학위의 수여(교육 대학원에서는 그 전공이 모두 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이 전공이 아니라고

- 1) 국어국문학과에서 필요한 언어 지식과 국어교육과에서 필요한 언어 사용 능력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이들의 차이만큼이나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는 차이가 난다. Stern, H.H. (1984)은 언어 지식과 언어 사용 능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언어 지식	언어 사용 능력
언어에 대한 지식	담화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 : 문법(보통의 학교 문법)	담화 표현/이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 담화 문법
구조언어학의 대상	국어교육학의 대상
입문기 규범적 성격 부각	중등기 이후 표현/이해 활동의 효율성 부각

생각하는 경향이 짙고, 다만 전문 대학원의 학위일 뿐이라 생각한다)로 간주하는 풍토에서 국어교육학 전공이라는 것은 아직도 국어학이나 국문학 전공으로 분류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교과교육학으로서의 국어교육학의 중요성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국어 교사의 필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국어교육과 교유의 필수적인 강화를 국어교육과의 교과 과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국어 교사의 특성상 필요한 일이다.

III. 바람직한 국어 교사의 양성과 자격증 수여

국어 교사의 양성은 국어교육과 학생과 국어국문학과와의 교직 이수 학생으로 이루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국어 교사의 양성은 국어교육과 학생에게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필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국어국문학과 출신도 국어 교사 자격을 수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의 타당성을 보기 위하여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와의 차이를 서울대학교 요람(1990)을 통해 살펴보자.

국어교육과 : 국어 교육은 국민 교육의 기본이다. 국어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을 터득하여 올바른 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 및 국어 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 학과의 교육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어학, 문학 등 국어국문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탐구 그리고 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 훈련한다. 본 학과에서는 국어 교육에 뜻을 두고 훌륭한 국어 교사로서 교육의 일선에 서고자 하는 학생으로 지조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창작이나 기타 특정한 예술 부문의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을 교수, 지도하는 곳이 아니므로, 오로지 이 방면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학과에서 요구하는 최적격자가 될 수 없다.

국어국문학과 : 본 학과는 국어학과 국문학의 학문적 연구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공 분야를 국어학, 국문학(고전 문학, 현

대 문학)으로 나누어 교과목을 편성하고 높은 학년에서는 이 3개 분야 중 학생의 적성에 따라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해 장차 학자로서의 기초를 굳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본 학과는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원으로 진출하여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바람직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위에서 보면 국어교육과는 국어 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국어국문학과는 국어국문학자나 문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그 학과의 목표가 다르듯 그 학과의 교과 과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따라서 학과의 목표가 다르다면 국어 교사의 자격을 兩科 졸업생 모두에게 수여한다는 것이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국어 교육이 “국어학 + 국문학 + 교육학”이거나 “국어학 + 국문학 + 국어 교육(6학점 정도) + 교육학”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두 과목의 국어교육 관련 강좌를 이수하면 국어 교사 자격을 수여하는 것은 국어 교육의 특성을 국어국문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문법이라도 국어국문학과에서 필요한 문법(학문 문법)의 내용과 범위가 국어교육과의 문법(교육 문법)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2)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문법은 달라야 한다. 즉, 언어 교육을 위한 언어 기술은 그 기준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사용하는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조봉림, 1984:208 참조).

ㄱ. 언어학자 자신의 직관에 의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자료(담화라 하자)에 의존해야 한다.

ㄴ. 언어 그 자체만의 연구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ㄷ. 언어학자는 규칙을 강조하지만 언어 교육에서는 규칙보다는 규칙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ㄹ. 언어 교육에서는 문법정보보다는 용인성을, 적형정보보다는 적절성에 의해 기술하여야 한다.

ㅁ. 언어 능력에서는 실제로 언어 사용 능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ㅂ. 언어 교육에서는 문맥 속에서의 언어 사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발화간의 관계에도

1990년의 대학 졸업생 취업 분석에 따르면 국어 교사로 진출한 인원은 국어교육과가 595명, 국어국문학과가 509명으로 나타났다(진태하 외, 1990: 34). 이는 실제 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국어 교사 가운데 많은 수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임을 알게 한다. 교사 자격증을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의 30%가 받을 수 있다는 현 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국어 교사 자격 수여 대상자는 국어교육과 30개 학과 1000여명과 국어국문학과 89개 학과 1400여명이 된다. 이는 절대 숫자로써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이 국어교육과 졸업생보다 교사 자격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어교육과의 설치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어교육과 신입생 선발에는 교직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가 필수적으로 따르나, 국어국문학과는 이런 절차가 없다. 또한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대로의 교사 자격 수여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교육의 각 영역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뿐 아니라 국어과 교육의 기본을 이루는 국어과 교육의 원리, 국어과 교육 과정, 국어과 교육 평가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윤희원, 1990:180)을 고려한다면 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다양하며, 이런 학문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현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 교육을 수행할 능력만이 아니라 미래의 국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 각국의 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국어 교사는 국어 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시급하다. 교육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에게 국어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는 그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과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수행한 경우에만 자격증을 수여하라는 말이다. 한두 과목의 국어 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자격증을 받는다는 사실은 교과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한 사고에서 온 불합리한 행정의 결과다. 왜 그런가 하면 순수 학문을 주로 다루는 국어국문학과와 국어를 가르쳐 언어 사용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학문을 다루는 국어교육과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나 교육 대학원의 학생 가운데 국

어 교사가 되려는 학생에게는 지금보다 많은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국어교육과 졸업생에게만 국어 교사 자격을 수여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IV. 임용의 문제와 개선 방안

국공립 중등 학교 국어 교사의 임용은 “교사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경쟁 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진다(이하 “임용 교사”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임용 교사가 위에서 거론된 자질이 갖추어진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용 교사의 출제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자의 자질, 출제 범위 및 수준, 출제의 내용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출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나, 응시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고교 과정의 국어학, 국문학 관련 내용 중에서 특정 분야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교과 교육 관련 문제는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출제된다고 한다. 교과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교육에 관한 기본 이론조차도 접해본 일이 없는 출제자나 응시자들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출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용된 교사가 가르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교사를 거쳐 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출제가 고교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곤란도 또한 대입 학력 교사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일류 대학의 본고사 수준보다 떨어진다면 그 교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교사 내용이 고교 국어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출제가 현 국어과 교육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변별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국어 교육은 발전하지 못하고, 국어 교사 임용 교사에는 정상적으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보다는 고교 교과서와 참고서를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로는 국어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어 교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어 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어 교육의 발전은

어려울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 국어교육과 교수들로 구성된 국어 교사 임용을 위한 교사 출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때 이들 구성은 국어교육과의 교과 과정을 표준화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의 국어 교사를 양성하여 중·고등학교의 국어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한도에서 교과 과정을 표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³⁾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교사 임용 고사를 거쳐 국어 교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는 국어교육과 졸업생 모두에게 국어 교사 자격을 수여하기보다는 국가 자격 고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교육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자격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 중등 학교 국어 교사의 임용도 공립 중등 학교 국어 교사와 같이 임용 고사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립 학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국가의 지원을 사립 학교에서 받지 않고, 사립 학교 학생이 본인이 원해서 지원 입학하였을 경우라면 모르나, 두 가지 모두 아니기 때문에 국어 교사의 임용은 공개된 임용 고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립 국어 교사의 질의 평준화, 또는 국어 교사의 기본 자질의 보유를 위해 사립 학교 국어 교사도 임용 고사를 거쳐 임용되어야 한다.

V. 결어 및 제언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는 학과의 설립 목적이 다르다. 또한 교과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 학생 중 교직 강좌와 한두 강좌의 국어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하게 하고 국어 교사 자격을 수여하는 문제는 개선되

3) 전국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의 국어 교육 관련 과목의 개설 수는 진태하 외(1991:23)에 의하면 0 - 16개 교과가 개설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전공 필수 교과는 0 - 9개가 개설되어 있다.

어야 한다. 다만 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국어 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한 경우는 자격 수여에 문제가 없다.

국어 교사를 임용하기 위한 임용 고사는 국어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그 출제자와 출제 내용 및 수준이 훌륭한 국어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들로 구성된 국어 교사 임용 고사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고, 전국 국어교육과의 교과 과정의 일부는 평준화되어야 한다. 필요한 국어 교육 관련 강좌가 모든 국어 교사 양성 기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높은 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또한 국공립 학교 국어 교사만이 아닌 사립 학교 국어 교사도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국어 교육과 관련된 인사들의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국어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구봉림(1985), 談話와 言語 教育, 논문집 21: 201-213, 경기공업개방대학.
 김종인(1987), 문장 언어학의 한계와 담론 언어학의 근거,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노명완 외(1990), 언어와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
 윤희원(1990), 국어과 교사의 자질과 그 양성, 국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학술 세미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175-184.
 이용주(1986), 국어 교육과 국어 교사, 국어교육 57·58:1-14.
 이충우(1987), 중등 학교 국어과 교사 양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65-66:55-73.

李和國(1988), 敎員敎育에서의 敎科敎育 실태와 개선 방안(上)·(下), 大學敎育 32,33, 韓國大學敎育協議會.

진태하 외(1991), 국어敎育과 敎育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대학교敎育협의회.

Beaugrande, R.A. & Dressler, W.U. (1972),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김태옥·이현호 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Stern, H.H. (1983), Fundamental Concept of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Stubbs, M. (1983), Discourse Analysis, Chicago Univ. Press.

Stubbs, M. (1988), Educational Linguistics, Basil, Blackwell Ltd.